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연행착오입니다!”, “뭐야? 이 자식아!”



김 현 식 고려대 법학과 76학번, 한국 청년 전문가연합 수석총무, 한국방송영상 전문위원, 아리랑TV 경영전략실장, 세계방송 전략기획단장,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사무총장(현)

해마다 3월 26일이 되면 20여 년 전 그날이 문득 떠오르며 파편처럼 흩어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개인의 추억 정도로 간직한 채 역사 속에서 잊혀질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을, 복원하고 새롭게 평가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금 옛 생각에 잠겨봅니다.

그러나 막상 글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 별로 대단치도 못한 사건을 무슨 무용담처럼 쓰기도 부끄럽고 기억이 희미해진 부분들도 많아 참 망설여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비록 작은 몸짓이나마 그런 노력들이 모여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유신독재도 종말을 고하게 되었고, 80년 광주와 그 이후의 운동에 밑알이 되었다는 아주 작은 자부심을 간직한 채 그 시절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1979년 3월 26일 새벽 6시 30분쯤이었을까. 그날따라 서둘러 일찍 일어나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이명식(행정76) 군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길한 얘기가 있어 혹시나 하고 밤 12시가 넘어 집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 같아 집에 온 후에 만일에

대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막 마당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채우고 두어번 얼굴을 문지르는 순간 대문이 덜컥 열리면서 한눈에도 ‘짹새’ 입을 알아볼 수 있는 건장한 체구의 중년 세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순간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길이 없어 우선 태연을 가장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그 때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김현식이 집에 있었구만”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어”

“아니 누구십니까?”

“보면 몰라? 성북서에서 왔다.”

“예? 제가 경찰서를 왜 갑니까?”

“가 보면 알아. 자, 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경찰에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걸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연행착오라고? 그건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해서 강제로 차에 태워진 저는 차 안에서도 열심히 오리발을 내밀다가 급기야 성북서 기동대 막사에 끌려갔고, 온몸을 빗줄로 묶인 채 무지막지한 구둣발길질과 각목구타에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성북서에 도착해보니 동기들과 후배들이 이미 하루 전부터 줄줄이 잡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계장에게 계속 연행착오를 주장해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제 별명이 ‘연행착오’였습니다. 특히 동기였던 이승환군은 내 얼굴만 보면 연행착오라고 웃으며 놀려대곤 했습니다.

성북서는 그렇지 않아도 78년 9.14테모와 11.9테모의 배후 관련자로 증거도 없이 두번이나 저를 연행하여 고문을 가한 바 있었는데 이번엔 드디어 주동으로 모의하고 준비를 하다가 잡혔으니 반쯤 죽어야겠다고 작심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동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79년 유신독재 타도를 위한 고대 학생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첫 시위를 4월 초(날짜를 잠

정 확정하였지만 기억이 희미함)에 거행키로 하고 주동자 한 팀을 꾸리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였으나 저와 이내영(정외76, 기독교학생회장) 군 이외에 멤버가 짜여지질 않아 고심하던 중 시일이 촉박하여 들만으로 결행키로 하고 선언문 작성을 준비하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모의행위가 탄로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 겨울방학 기간중 고대 학생운동 제세력의 대표들이 몇 차례 비밀회합을 갖고, 78년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와 79년 학생운동의 전망 및 고대 학생운동의 전개방향과 구체적 역할분담 등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 회합의 참가자 중 한 사람이 검거되어 당시 논의된 내용의 전모가 드러남으로써 일제 검거된 것입니다.

그 중 4명이 구속, 제적되었는데 주범으로 김현식(법76), 이내영(정외67) 그리고 종범으로 강경탁(법76), 이명식(행정76)이었으며 주범은 구류 29일과 강제징집, 종범은 구류 20일을 받았습니 다. 종범 두 사람은 주범들의 시위의 후속조치를 하고 다음 시위를 주동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고연전 시위를 주동하여 다시 구속되었으나 곧이어 유신정권이 몰락하면서 징역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당시의 비밀회합은 구 서울문리대 앞 '공략촌' 과 '진아촌' 이라는 중국집이었고 참석자가 10명 이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이미 이 모임 이전부터 고대 오픈 씨클의 중심이었던 겨레사랑회(당시 고대 내에서 가장 역량있는 조직이었음)의 회장을 맡고 있다가 후배인 이경재(행정77)군에게 물려주고 79년 첫 시위 주동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78년 여름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고려대 학생운동은 75년 위수령으로 모든 학내운동조직이 와해되고 학회마저 일제히 해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악명높은 긴조9호가 발동되어 일부는 지하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조성우(행정68), 설훈(사학74) 선배 등이 주도하던 청년문제연구회의 후신인 고전연구회 정도가 76년 오픈서클로 살아 남아 조직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작고한안희대(정외72) 선배 등이 한국학연구회를 발족하였으나 그세가 크지 못했고 78년에는 박광한 등 78학번 중심의 사회과학연구회가 등장하였으나 선배그룹 없이 외롭게 스테디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언더로는 정경연(정외75) 김종철(법75, 작고) 선배가 주도하던 민맥이 있었고 이범(정외

77) 등이 중심인 아카데미와 기타 교회관련 멤버들이 더러 있는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위 주동을 한 번 하면 여지없이 감옥행이었고 이후 인생의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 참으로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실존적 결단이 없이는 감히 시위주동을 한다는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습니 다.

이점에서 유신독재와 투쟁하고 광주항쟁을 겪은 긴조세대에 비해 386세대는 참으로 축복 받은 세대입니다. 그들은 우리 긴조세대의 피어린 투쟁 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세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배들의 축적된 투쟁경험을 전수받고, 유신독재의 붕괴와 80년 민주화의 봄, 그리고 광주를 통해 확대된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기초로 하여 선배들이 각 부문운동에 구축해 놓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자기전망을 세울 수 있었고 전국 단위의 조직을 건설하고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78년 여름 고려대 운동권의 간판 서클 격이었던 겨레사랑회 내부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5년 명동사건으로 징역을 살던 조성우 선배의 출옥과 76 및 77학번 후배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선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하던 우리들에게 조 선배님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이었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어울렸고 마침내 그해 여름방학 중 부산 바닷가에서 비밀회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성우 선배를 두목(?)으로 76학번에서 김현식, 엄주용, 오상석 그리고 77학번에서 이경재, 전성, 정태현 등 6인의 후배들이 모여 하반기에는 고대 학생운동의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을 결의하고 순서를 정해 시위를 조직, 주동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당시 3학년이었던 76학번 세 사람의 순서가 정해졌는데 1번이 오상석, 2번 엄주용, 3번이 저였습니다. 우리는 그해 가을부터 순서대로 오상석 군이 유명한 9.14데모를 주동하였고, 엄주용 군이 11.9 강당에서의 데모를 주동했습니다. 저는 겨레사랑회장을 맡아 조직을 추스르고 마지막으로 79년 첫 시위를 주동하는 것으로 역할을 부여받아 이상없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저는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선배그룹과 연계를 하고자 정경연(정외75) 선배의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우리 학번에 오상석 군이 준비되었으니 한 팀을 만들어달라는 부탁

을 드리자 준비된 선수들이 있으니 연결시키도록 하자며 7월 어느날인가 오후에(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억되지 않음) 노량진역 앞에서 접선토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장로교청년회 전국대회에 참여하고자(당시 경동교회에서 서울공대를 비롯한 타 대학 운동권학생들과 스터디 그룹을 운영중이었음)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시위가 발생하였고 저는 접선 책임 때문에 안전하게 시위대 중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만 허리가 잘리면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직 여기서 붙잡히면 시위가 불발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필사적으로 땅바닥에 누워 버티었습니다. 구뎃발이 날라오고 곤봉이 난무했습니다. 안경이 떨어져나가고 이젠 끝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시위대가 방향을 틀어 다시 제가 었어져 있던 곳으로 밀려왔습니다. 순간 경찰의 시선이 일제히 시위대를 향하는 틈을 타 잽싸게 도망을 쳤습니다.

전주중앙교회에 도착하여 한숨을 돌리자 이번에는 교회를 겹겹이 둘러싸고 물샷틈없는 포위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큰 일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접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민 끝에 새벽에 포위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담을 넘어 도망니와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행히 이날 오후 접선에 성공함으로써 9.14테모팀이 이상없이 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얘기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 어쨌든 조성우 선배의 등장으로 시작된 겨레사랑회의 선도적 투쟁은 후배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후 고대 학생운동의 중심체로 80년대 중반까지 면면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 만으로는 씩씩하게 열심히 싸웠다고만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상석, 엄주용 두 동기를 먼저 보내고 두 번씩이나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고 나니 점점 두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래도 후배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책임감도 느끼기에 이겨 나갈 수가 있었지만 겨울방학이 되고 졸업을 1년 앞두는 상황이 되자 가족들 걱정에 잠을 이루기가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님이 일찍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을 얻어 거의 생활무능력 상태였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동생들이 줄줄이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논 몇마지기 팔아 가까스로 입에 풀칠하며 저의 졸업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장위동에서 고대까지 걸어다녔고 가까스로 도시락은 챙겨서 밥은 굶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집은 밥먹고 살 만한지부터 챙겨 보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학비는 용자받고 아르바이트로 몇푼 벌여 근근히 학교 다니는 주제에 학생운동으로 날을 새우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남의 무거운 짐이 매일같이 어깨를 짓누르고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내색도 하기 어렵고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어머니는 삶의 희망을 잃고 쓰러지시겠지. 동생들은 누가 돌보아줄 것인가... 번민은 끝이 없지만 운명의 시간은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고 학내 주요인물들의 회합이 시작되었습니다. 79년 첫시위가 논의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1번이었습니다. 눈 앞에 가족들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감옥간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맘을 다잡아도 차고나면 또 똑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도 좋고 민중을 위해 이 한몸 바치는 것도 좋지만 도대체 내 가족은 어찌란 말인가.

그러다가 이범(정외77) 군에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너만큼 어렵지 않은 놈이 어디있느냐는 한마디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동지들의 삶이 얼마나 고독한 결단을 요구당했는가 하는 점을 제 경우를 빗대어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내리고부터 저는 이왕이면 유신정권에 결정타를 먹일 만큼의 대규모 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성우 선배를 찾아 갔습니다. “연합시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하고 묻자 다른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 도천수 선배를 매개로 연계토록 하라는 오더가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한편으로 시위주동자를 물색하면서 또 한편으로 학교간 연대선이 연계되기만을 학수고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는 답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었고 시위 일정을 계속 늦출 수는 없었기에 이내영 군과 들만으로 결행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는 휴학을 해 놓고 마지막으로 절친했던 법대 동기들이 고시공부를 하고 있던 마곡사로 하직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마곡사 뒤 계곡에서 밤새도록 술을 퍼먹고 나는 얼마 있으면 감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라는 말을 남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내영 군을 만나 시위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들어온 이튿날 허망하게 검거되고만 것입니다.

두서없는 제 글을 이쯤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애깃거리로 따지자면 무궁무진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다 옮길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학비재하여 멋진 글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작은 기록들이 밑거름이 되어 옛 동지들과 다시 한번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 세대가 역사의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시절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문제의식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77년 10월, 백양로와의 작별



노영민_ 연세대 경영학과 76학번. 우리밀살리기운동 총북본부 대표, 민주개혁국민연합 총북연대 공동대표, 열린우리당 행정수도이전대책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청주 흥덕을(현))

70년대 후반의 시대상황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조차 한순간에 거리의 투사로 돌변시키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가장 투쟁적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76년에 대학에 입학했던 나는 지극히 평범한, 아주 상식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민족과 역사를 논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그 현실과 상식이 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 지은 바오로6세는 스스로를 '종들의 종'이라고 즐겨 칭했는데 우리 국민은 다른 의미에서 '종의 종들'이었다.

우리는 노예였다. 나는 나의 운명과 미래의 고삐를 내가 쥐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나의 운명의 고삐는 독재자의 손에 있었고 나는 전혀 주체적이지 아니었다. 우습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개정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청원할 권리도 없었고 그러한 조항이 들어있는 긴급조치9호의 해제를 주장할 수도 없었다. 그 모든 행위는 엄청난 범죄행위였다.